

국제신문 창간 60주년 축하 메시지

국제신문 창간 예순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국제신문은 우리 현대사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성장했습니다.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 폐간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9년 만에 복간을 이뤄 냈고, 공정한 보도와 알찬 기사, 다양한 문화행사로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착공된 데 이어 10개의 혁신도시와 6개의 기업도시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건설에 들어갑니다.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일 수 있도록 2단계 균형발전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러한 균형발전 시대를 선도해 나갈 도시입니다. 부산신항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고, 영상·관광·컨벤션 산업도 빠르게 성장해 세계적인 해양 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춰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북항 재개발과 시민공원 조성은 시민들에게 한층 쾌적하고 품

격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민과 자치단체, 언론·기업·대학 등 지역의 각 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균형발전정책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온 국제신문이 이러한 길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60주년을 축하드리며, 국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